



2013년 3월 13일(수)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2월중 소매판매 예상외 큰 폭 증가
- 2) 1월중 기업재고, 20개월래 최대 폭 증가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유로존 1월 산업생산, 예상외 큰 폭 감소
- 2) 이란, 2월중 석유수출 미국의 추가제재에도 불구하고 증가
- 3) JP모건, 엔/달러 환율 4년래 최저 수준 가능성 전망

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애플, 자사주 매입 또는 현금 배당 나설 것이라는 관측 제기
- 2) 삼성전자, 지난해 미국내 스마트폰 시장 최대 광고주로 부상
- 3) 美정부, 티모빌-Metro PCS 합병 승인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### 1) 2월중 소매판매 예상의 큰 폭 증가

- 지난 3월13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2월중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1.1% 상승했다고 발표
 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중간값 0.5% 상승을 웃도는 결과로 전문가들은 1% 하락에서 0.6% 상승까지를 예상한바 있음
  - 또한 금번 결과는 지난 5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세로 기록
  - 한편, 지난 1월중 소매판매액지수는 0.1%에서 0.2% 상승으로 상향조정
- 품목별로는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판매 0.4% 증가,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1.0% 증가
  - 총 13개 주요 카테고리 중 8개 부문의 판매가 증가
    -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주유소 판매가 5%, 건축자재 직판점, 자동차 대리점, 종합소매점 등의 판매도 증가
-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개선,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(富) 증대 등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며 급여세 인상 영향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

### 2) 1월중 기업재고, 20개월래 최대 폭 증가

- 지난 3월13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1월중 기업재고가 전월대비 1% 증가했다고 발표
 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0.5%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2011년 5월 후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냄
- 이는 기업들이 수요 증가 전망에 재고를 확충하고 있는 신호로 분석됨
  -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소비 지출 확대로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 투자에 나서면서 산업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### 1) 유로존 1월 산업생산, 예상외 큰 폭 감소

- 지난 3월13일(현지시간) 유럽연합(EU) 통계청 유로스탯은 1월중 유로존 산업생산이 전월비 0.4% 감소했다고 발표
 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0.1% 보다 가파른 감소세
  - 아울러 지난해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0.9%로 상향조정
- 품목별로는 내구 소비재와 자본재 생산은 각각 1.4%, 1.2% 감소했으며, 에너지 생산은 1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
- 국가별로는 독일의 산업생산이 0.4% 감소, 프랑스의 산업생산은 1.2% 감소한 반면 스페인의 산업생산은 0.6% 증가
-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가 극심하게 더딜 것으로 전망, 성장률이 매우 취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고 있어 부양책을 쓸 여지가 있다고 지적

### 2) 이란, 2월중 석유수출 미국의 추가제재에도 불구하고 증가

- 지난 3월13일(현지시간)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도 불구하고, 지난 2월중 이란 석유 수출이 증가했다고 발표
  - IEA는 2월중 이란의 일일 평균 수출량은 128만 배럴로 1월의 113만 배럴보다 증가, 미국의 추가 제재가 2월중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
  - 미국은 지난 2012년 12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결제대금을 이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‘對이란 추가 제재안’을 발효시킨 바 있음
- IEA는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 교착상태가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, “조만간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망

### 3) JP모건, 엔/달러 환율 4년래 최저 수준 가능성 전망

- 지난 3월11일(현지시간) JP모건은 엔화 가치가 달러화대비 4년래 최저 수준인 100엔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
  - JP모건의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니알 오코너는 엔/달러 환율은 97~97.80엔 범위에서 시험에 직면, 이 핵심 지지구간이 무너지면 엔/달러 환율은 2009년 4월 이후 최고인 100엔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
- 한편 엔/달러 환율은 지난 8일까지 5거래일 동안 3% 상승,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주간 기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한바 있음

#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#### 1) 애플, 자사주 매입 또는 현금 배당 나설 것이라는 관측 제기

- 지난 3월12일(현지시간) 미국 인터넷매체 쿼츠(Quartz)는 애플이 금년 봄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관측되었다고 보도
  - 애플은 금년 봄 신형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미니를 선보이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과 관련한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
  - 현재 애플이 보유한 현금은 약 1,370억 달러 규모로 애플은 최근 골드만삭스를 통해 주주들에게 보유 현금을 돌려줄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됨
- 한편 애플은 지난해 향후 3년간 약 450억 달러 규모의 배당 및 자사주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음

#### 2) 삼성전자, 지난해 미국내 스마트폰 시장 최대 광고주로 부상

- 지난 3월12일(현지시간)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하는 데 광고비를 대폭 늘린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

- 컨설팅업체 칸타미디어는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중 미국에서 스마트폰 광고로 4억1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집계, 이는 애플의 3억3,3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
- 한편,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에는 7,800만 달러를 광고비용으로 지출, 애플의 2억5,300만 달러의 1/3에 불과했던 광고비를 1년 새 500% 넘게 증액,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- o WSJ는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광고 전략은 IT업계내 경쟁사간 기술 격차가 좁아지면서 광고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
- o 한편, 광고효과는 시장 점유율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삼성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중 19%에서 2012년 30.3%로 급등세를 나타냄

### 3) 美정부, 티모빌-Metro PCS 합병 승인

- o 지난 3월12일(현지시간) 미연방통신위원회(FCC)와 법무부가 독일 도이체텔레콤 자회사인 미국 4위 이동통신사 티모빌과 5위인 메트로PCS간 합병을 승인
  - FCC는 성명을 통해 두 업체의 합병은 이동통신 시장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며,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힘
  - 법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합병을 승인
- o 이번 합병으로 메트로PCS 주주들은 현금 15억 달러와 합병사의 주식 26%를 확보, 나머지 74%는 도이치텔레콤이 소유하게 되며 합병사명은 티모빌로 남게 됨